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6일 목요일 (음 윤5월 13일) 제18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재정적 어려움 겪는 지자체 숨통 트이나?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족재원 고려해 현행 19.24%에서 23%로 3.76% 인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5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3.00%로 3.76%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뒤 20여 년이 지났으나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구조로 인하여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의 통합재정 지출 사용액 규모 비율은 약 5대 5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세출구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 2017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

지입도는 53.68%이며, 전국 243곳의 지자체 중 재정지입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는 88.48%(215곳)에 달한다.

또한 서울의 재정지입도는 85%인 반면, 전남(26.23%), 전북(28.6%), 강원(29.07%) 등 지방은 낮은 재정지입도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9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3.20%와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3.00%로 3.76%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지방분권·재정분권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등 및 격차 해소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부족재원의 평균은 약 4조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모두 보전해주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법정교부세를 현실화 통해 지방재정 보전제도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신임 이사 위촉장 수여식이 5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신임 이사들이 위촉장을 보여주고 있다.

###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믿음을 갖자"

#### 본사 신임 이사 위촉장 수여식 임현기 수한방병원 이사장 등 8명

전주매일 신임 이사 위촉장 수여식이 5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는 조봉성 대표를 비롯한 김옥길 회장, 김중철 도의회 행정위원장 등 내빈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사에서 새롭게 활동 할 이사는 총 8명으로 구성 됐다.

조봉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을 기회로 삼고, 서로 믿음을 갖자"며 화합을 강조했다.

김옥길 회장은 환영사에서 "본사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김중철 도의원은 "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정통직필' 하는 신문사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신임 이사는 ▲임현기(수한방병원 이사장) ▲이오순(개미화사업 대표) ▲최정수(하이코리아 대표) ▲김형식(참다예 대표) ▲김관수(전라도음식이야기 대표) ▲양현섭(사단법인 경정 법무법인 대표) ▲이정애(목사) ▲정수길(전주바울교회 여 전도회 회장)이다. /김진성 기자

## '어린이가 안전한 전북 만들자'

### 도, 프로젝트 출범식... 송 지사, 지속 지원 부탁

전북도는 5일, 도청 1층 로비에서 전라북도·현대자동차 전주공장·금속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굿네이버스 전북본부가 참여하는 '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 프로젝트'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문정훈 현대자동차주공장 공장장과 인주열 노조 전주공장위원장,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본부장, 이동복지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가 성급 1억 8천만원을 전북도와 굿네이버스 측에 전달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다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오랫동안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역기업 현대차 관계자에게 감사함을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

을 부탁했다.

"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 프로젝트"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불의의 교통사고, 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상처입고 고통 받지 않도록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아동범죄와 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포스터 공모전 등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특히 구호물품 상자인 'Safe care kit'는 영유아 및 청소년이 있는 위기가정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직접 물품을 제작하고, 추후 필요한 아동 300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굿네이버스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모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산자부 "군산조선소 재가동 되면 좋겠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군산시를 찾은 강성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2면>

5일 오후 강 실장을 필두로 정부 부처(산자부 등) 실무진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를 찾아 조선업체 대표와 소상공인 등과 머리를 맞댔다.

강 실장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와 지역 사회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총리가 재가동되면 좋겠다.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군산=장 현 기자

\*\*\*전주시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본사와 점주간 분쟁 급증

### 공정위로부터 갑질 제재 받은 업체 지난해보다 4배 증가

커피,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난해의 네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이다.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던 것을 봤을 때 제재 건수가 무려 네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 Hut, 죠스푸드, 본아이오프 등 외식업체 세곳과 토니모리 등 총 네곳이다.

치킨방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외 살빙, 토니버거, 육방살, 회전푸드 등은 아홉곳은 경고를 받았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8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특히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갑

질' 논란에 시끄러운 상황이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참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증가는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비례한다.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가맹점 수가 과다하게 늘어난다면 각종 분쟁과 갑질 논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었는데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가맹본부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재용 기자

## 떠나자

맑은 물과 푸른숲이 있는 순창 강천산으로...

강천산 계곡, 강천산 병풍목포, 메타세리아길, 장군목

### 순창의 참종다

순창의 전통(國), 세백인의 일품소스(SALUCE)

## 제12회 순창장류축제

2017.10.20(금)~10.22(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